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0. 8. 12.(수) 총 4매	
담당 부서	혁신도시 지원정책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이대섭, 사무관 김동현, 사무관 임창호 • ☎ (044) 201-4483, 4484
보 도 일 시		2020년 8월 13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12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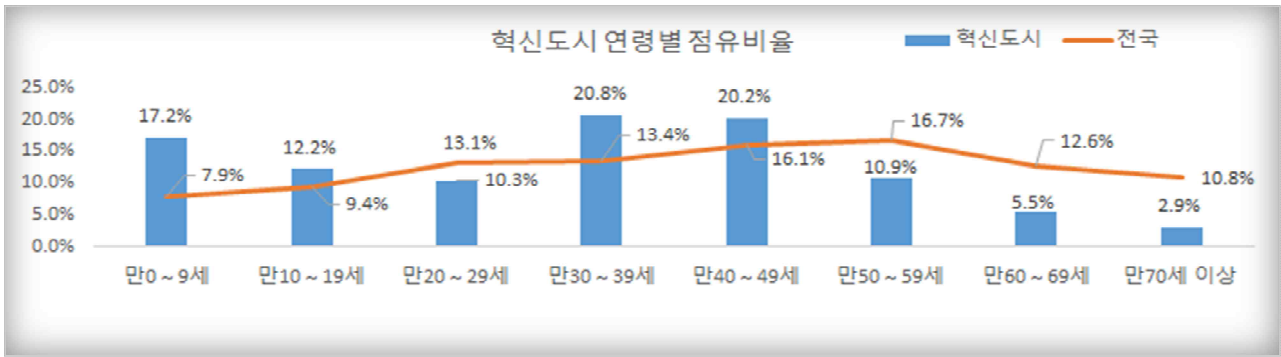
국토부, 20년 상반기 혁신도시 정주환경 통계조사 발표

- 공동주택(77,937호), 어린이집(268곳) 등 정주환경 점차 개선으로 나타나
- 부처 합동 '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' 차질 없이 추진 예정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혁신도시 정주인구 현황과 핵심 정주시설 공급 현황을 내용으로 하는 “2020년도 상반기 기준 혁신도시 정주 여건 통계 조사 결과”를 발표하였다.
-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혁신도시 공동주택 77,937호, 어린이집 268곳 공급 등 혁신도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, 정주환경이 점차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【정주인구 현황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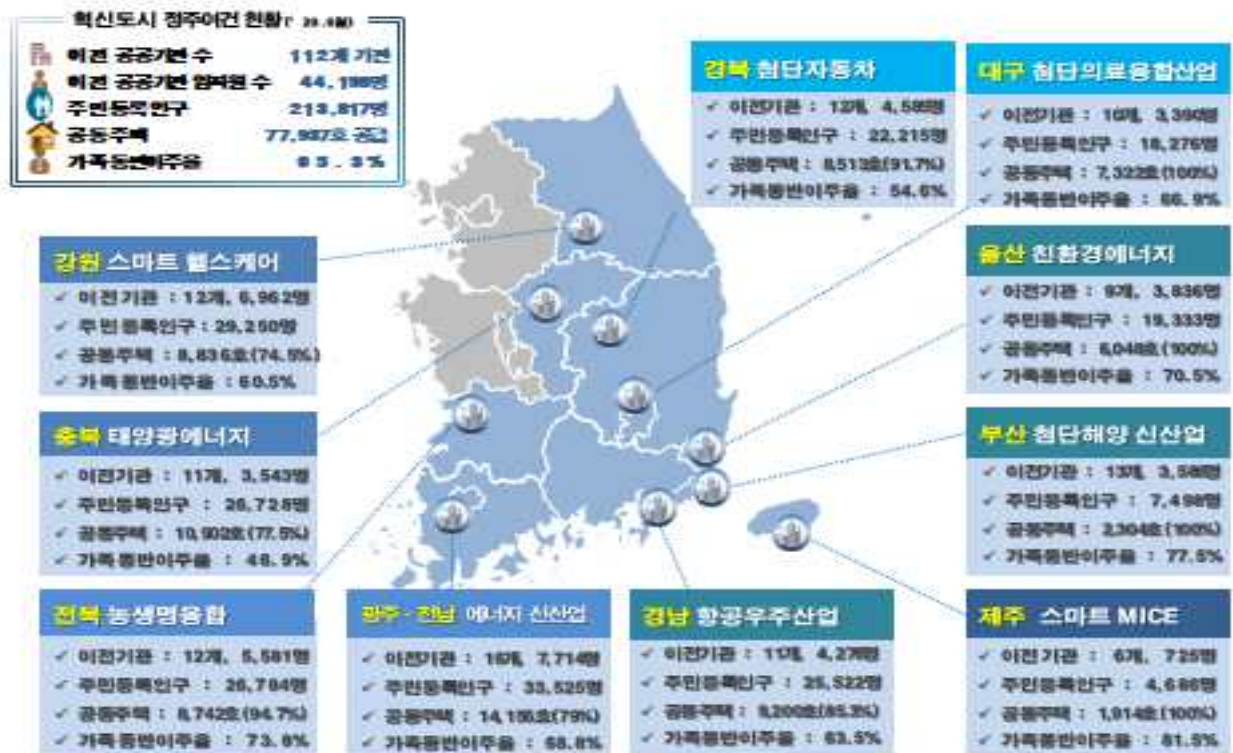
- '20년 6월 말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는 21만 4천여 명(213,817명)으로 '17년 말(174,880명) 대비 38,937명이 증가했다. 또한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의 평균 연령은 33.2세로 대한민국 평균 연령 42.9세에 비하여 매우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특히 혁신도시는 9세 이하의 인구가 17.2%(전국평균 7.9%), 이와 관련 부모세대인 30~40대 비율은 41.0%(전국평균 29.5%)로 젊은 도시의 특성을 반영, 생애주기를 고려한 어린이(가족) 특화 생활 기반시설(인프라)에 대한 고려를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.



□ 이와 함께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(미혼·독신 포함)은 '17년 말 (58.1%) 대비 7.2%p증가한 65.3%로 정부대전청사 이전 5년과 10년 경과한 시점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각각 62.1%, 65.8%로 유사한 이주 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.

○ 혁신도시별로 제주(81.5%), 부산(77.5%), 전북(73.8%)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북(46.9%), 강원(60.5%)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.

《 혁신도시 정주여건 현황('20.6월) 》



- 한편,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지원하고 있다. 최근 3년('18~'20)간 교원 및 공무원 이전교류 신청을 통해 교원 76명, 공무원 40명 등 116명을 이전시켜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.

【정주시설 공급 현황】

- 혁신도시 공공주택 공급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. '20년 6월 말 현재 혁신도시에는 공동주택 7만8천여 호(77,937호, 누적)를 공급하여 전체 계획대비 87.6%의 물량에 대한 공급이 완료되었다.
- 또한 혁신도시 내 계획된 초·중·고 54개 중 46개교가 개교하였고, 유치원 41개소 및 어린이집 268개소가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다. 병·의원, 약국, 마트 등 편의시설은 총 7,125개소로 '17년 말 5,415개소에 비하여 개선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.

《 분야별 혁신도시 정주여건 현황('20.6월) 》



- 다만, 의료기관의 경우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시설 접근에 30~40분이 소요되는 등의 등 접근성이 미흡하고 혁신도시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어, 정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가장 많았다.
-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지원정책과 이대섭 과장은 “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, 공공기관 모두의 노력으로 ‘17년에 비해 정주환경 조성 등에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”고 평가하며,
 -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부처와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며 “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‘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’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”고 의지를 다졌다.
 - 아울러 “혁신도시가 가장 젊은 도시임을 감안하여 정책의 방향을 생애주기에 맞춰 유연성 있게 펼쳐나가고, 혁신도시 시즌 2에 맞춰 수준 높은 주거·교육·문화·의료·교통 등의 정주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